예수께서 내시는 식사

오병이어

5BREADSand2FISH.ORG 515 Crocker st. LA. CA 90013 5Breadsand2Fish@gmail.com 323.400.7830

한국 "살아가는 지식과 방법을 왜 세상에서 찾습니까?"

한국에서 집회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께 왜 간증을 하시지 않으시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간증이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도전을 줄 수는 있지만, 결국 간증은 남의 이야기이고, 간증이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거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모두 다 자유한 삶을 사시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보다 더 뛰어난 간증들이 많이 생기시기를 바란다고 축복해주셨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자신들의 선행을 이야기하고, 간증을 나누는 활동들이 기금을 모금함으로 끝이 나는 것을 이번에 한국에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나에게 복을 주시는 어떤 신이 아니라,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목사님이 크게 외치셨습니다. 순전한 예배에 대한 갈증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해 간증을 하는 이유도, 아주 힘든 이웃의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 사역에 대해 말함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헌금을 유도함이 아니요, 오직 공급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지식과 방법을 왜 세상에서 찾습니까?"

귀청이 터질듯 외치는 목사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의 심장에서 흘러넘쳤을 빨간 피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운영방법을 합리와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적용하고, 선교도, 전도도 그렇게 하라하며, 기업의 성공사례에 교회가 귀를 기울임이 정당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로써,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 사례는 오직 모든 치욕과 고통을 안고, 영혼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뿐입니다. 처절한 실패요, 소망의 끊어짐 같았으나,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은 오직 그곳에서만 시작됨을 믿습니다.

목사님은 자기를 부인함은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계산을 부인해야하는 것이라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만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고 하셨습니다.

지식적으로만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주님의 일과 그렇게도 깊은 상관이 있었더라면, 구원은 오직 책을 많이 읽을 수 있고, 총명한 사람들에게만 허락이 되었겠지요.

공평하신 주께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믿음을 선물로 받은 그 어떤 작은 자가 있다 하더라도, 부족한 자들을 오직 순전한 믿음으로만 살게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름부우심을 그리워합니다. 세상의 일을 꿰뚫어 알고 있는 뛰어난 어떤 사람들이 오염시키지 않은, 하늘로 부터 내려오는 창조주의 사랑의 속삭임을 그리워합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중에 하나님의 불을 영혼 깊이 받은 자들이 몇이나 될까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믿는 이들이 주님께 충성되어 주님의 거룩한 불을 지키면 지키수록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지식과 방법을 묻고,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더 많은 영혼이 그 거룩의 길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강 같은 평강 가운데 살고싶은 소망

우리가 브라질과 한국에 있는 동안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교회인 GHC(Global Harvest Church)에서 몇 팀이 다녀갔고, 아버지 창고에 새 식구들도 맞았습니다. 그 사이 에밀리와 에스더는 미국에서의 훈련을 마치고 멕시코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졸였었는데, 브라질 사역터 열쇠를 받아서 사용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로써는 너무나 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던지, 우리는 그저 보내신 분의 뜻을 따르는 흠 많은 사람들일 뿐임을 잊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정착해서 안정적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 강 같은 평강 가운데 살고 싶은 강한 소망이 있습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식구들도 보고 싶습니다.

한국 이목사님은 브라질로 가는게 아니라, 파벨라로 보내지신 거예요.

만나자 마자 마치 다정하기 그지없는 연인처럼 손을 꼭 잡고 브런치 식당으로 들어가시는 두 분의 뒷모습을 보는 것이 이제는 이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한영 목사님은 한국 아세아 연합 신학 대학교에 계십니다.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병원에 의사로 계셨고, 사모님도 의사이십니다. 미국 병원에 날고 기는 의사들끼리 500대 1이 넘는 경쟁을 뚫고 들어가셨을때, 목사님은 스물 일곱의 앳된 청년이셨다고 하니, 엄청난 거지요. 포르투칼어는 물론이고, 영어와 한국말 사용이 자유로우신 구약학 박사이십니다.

지난번에 뵈었을 때도, 주중에 연구실에서 먹고 자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아프리카같이 힘든 나라에서 오신 학생들과 먹고 자고 하신다고 합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자주하는 말이 있어요. 너네들 하나님 앞에서 똑똑하면 다 망한다. 그런데 인내하면 성공한다."

깊은 물이 표면에 정교한 물결을 일으키며 잔잔히 흐르듯 이한영 목사님 입에서 겸손함과 배려가 가득한 말씀들이 천천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파벨라에 살았었잖아요."

파벨라는 한국의 달동네처럼 브라질 빈민가의 총칭입니다. 그때도 총기가 흔했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파벨라에 몇 년 사셨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브라질 이민 초기에, 포르투칼어를 할 줄 아는 꼬마로써 목사님이신 아버님을 도와 교민들의 정착과 생활을 도우려고 별별 일을 다 해야하는 것이 힘이 부치셨다고 하셨습니다. 14살에 목사 아들이라고 엄청 맞고서, 아버님께 말씀드리고 혼자서 브라질리아라는 대도시를 찾아가, 명문 고등학교를 전액 장학금으로 들어가셨답니다.

돈이 없으니, 빈민가인 파벨라에 작은 방을 하나 얻고, 사과상자를 하나 구해다가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셨답니다.

학교가면, 브라질의 최상류층 친구들과 공부하고, 몇 시간을 버스를 타고 파벨라로 돌아와 사과 상자 위에 책을 펴고 공부하셔서, 17세의 최연소에 의대까지 진학한 한국 학생.

글을 읽고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어린 학생은 금방 또 다시 마을 이장처럼 이런 저런 일들을 도와주시게되었답니다. 이웃에게 화가 나서 총을 들고 오는 사람들을 안정시키시는 일부터, 부부싸움한 이웃들을 상담하는 일까지 안해본 일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재미있게 있었어요."

이한영 목사님이 브라질 빈민촌 파벨라의 생성 배경을 역사적으로 쫙 이야기해주셨습니다. 포르투칼과 스페인의 세력다툼과 포르투칼 죄수들의 브라질 정착,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데려오는 과정 중의 잔혹한 죄악에 대해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브라질은 나라 전체의 부를 독점하고 있는 상위 10%의 독일계와 이탈리아계 지배층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뿌리깊은 악이 있어요. 흑인들과 인디안들에게 잘못한게 많아요. 지금도 브라질은 작은 유럽과 파벨라로 되어있어요."

하나하나 사랑과 관심으로 이야기하시는 브라질 이야기가 너무 흥미롭고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목사님은 브라질로 가는게 아니라, 파벨라로 보내지신 거예요. 브라질은 아이들 사역이 되게 중요해요. 거기서 부터 시작되야합니다."

이한영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도 파벨라 어느 작은 방에서 사과 상자위에 책을 펴고 꿈을 가꾸며 공부하는 어린 아이가 있으려나 싶어서 눈물이 핑돌았습니다.

이준 목사님은 지식은 어차피 모두 다 과거의 일이지 않느냐고 하시며,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이해하는 것의 차이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로마서에 분명히 나와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야.내가 이해할 수 없고,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도 순종하려고 노력할께."

사랑하는 두 분의 대화 가운데 있을 수 있음이 영광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더 많은 대화 가운데, 깊은 물과 같이 우리를 감싸던 따스함과 서로를 이해함과 겸손은 도저히 표현이 안됩니다.

멈추지 않는 여정에 대해 "꼭 그래야만 하느냐?" 묻는다면, "꼭 이렇게 하고 싶다.' 고 대답합니다.

한국의 일정을 다 마치고, 아침에 엘에이에 도착했고, 바로 또 다시 멕시코를 향해 달립니다. 멕시코로 이어진 이 길은 밤이 깃들었고, 졸음과 범벅이 되어, 이어졌다, 끊어졌다하고 있습니다. 갈 수 있는만큼 가고, 다 가지 못한 길은 내일 아침에 가겠노라 멕시코의 나단 전도사님께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낮에 공항으로 픽업 나와, 3개월만에 만나는 아들과 딸.

'하나님, 엄마 아빠 보내주세요. 내 엄마 아빠이기도 하잖아요.'

막내딸이 웃으며 그렇게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을 생각하니 짠하고, 아이 코 옆에 뭐가 난 것도 미안하고 안쓰러웠습니다.

"미안해. 이런 건 내가 해줘야하는데..."

한국에서 어떤 사모님께 받은 화장품을 딸아이 가방에 넣어주었습니다.

"아니예요. 전 괜찮아요. 로션 안바르고 썬크림만 발라도 돼요."

이제 스물되는 여자애가 그렇게 말하다니 말이죠. 더 미안해서 가만히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3개월만에 보는 아버지 창고 오병이어 식구들은 조금 더 정결하고, 조금 더 단단해진 듯 합니다. 택원전도사님은 많은 일이 있었다면서 하늘을 보고 웃기만 했습니다.

최선으로 드리는 예배의 삶 가운데 치열함과 처절함으로 만난지라,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 이심전심 통하는게 있습니다. 몇 달만에 만난 것은 반가움이상의 그 무엇입니다. 안도라고 해야할지, 사랑이라고 해야할지, 평온이라 해야할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이 행복합니다.

엘에이 아버지 창고에는 한국에서 모라 우리교회 김상곤 목사님이 와계셨습니다.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대면하여 뵙기는 처음인 정숙희 권사님은 지적인 분위기에 매력있으신 분이셨습니다.

멕시코로 향하는 깊어지는 밤의 모퉁이에서서 커피 한잔을 사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여정에 대해, "그래야만 하느냐?" 고 묻는다면, "꼭 이렇게 하고싶습니다. 그러기를 마음으로 너무나 원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당신들은 범죄자들이예요."

LA법원에서 오라고 했습니다. 홈리스들이 몰려있는 스키드로의 모든 건물이 다 시의 코드에 맞게 지어진게 아닙니다. 예외가 적용되는 곳이지만 아버지 창고의 일부 시설에 허가가 없다고 누군가 시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문을 닫게 될 것 같습니까?"

건물주 할아버지가 걱정스레 물어보셨습니다. 랜트비도 밀려있는 터에, 이런 일까지 있어서 건물주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실까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할아버지가 도리어 우리를 걱정하시는 것을 알게되어, 감사하기도 하고, 안심이 되면서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법원의 출두 명령서를 가지고 목사님과, 건축가이신 브라이언 선생님과 함께 110(43)도가 훌쩍 넘어가는 숨막히는 도시에 우뚝 서 있는 법원을 찾아갔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당장 그만두세요. 누가 위험한 사고나 당하면 어쩌겠어요? 사람들이 당신들때문에 얼마나 불평을 하는지 알아요?"

LA시 소속 변호사분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시에 신고하면서 생긴 일이었고, 시에서 우리의 불법 행위를 찾으려고 사람들을 여럿 보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홈리스분들을 들개라거나 시궁쥐라고 부릅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건물 허가관련 공무원 두 분 중 한 분이 법원에 가서 벌금을 내고 문을 닫던지, 아니면 시가 요구하는 허가들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하는 일들을 모두 당장 그만두세요. 우리가 당신들 문닫게 하라고 얼마나 많은 불평들을 듣고 있는 줄 알아요?"

"법을 어길 의도가 없습니다."

목사님의 말에 그가 우리를 보지도 않고 다시 말했습니다. 시소속 변호사분이 계속 화를 냈습니다. "당장 그만 둬요. 법을 어겼으니 당신들은 범죄자들이예요."

우리가 당장 문을 닫으면 힘들어질 6,200명의 우체국 가족들과 주중에 나가는 80,000명분의 음식이 필요한 주민들, 아침 홈 카페에서 커피와 빵을 받아가시는500에서 1,000명의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범죄자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눈물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숨을 크게 쉬고 앉아있었습니다. 우리가 수모를 당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때문에 사실 두려웠습니다.

시 변호사가 화를 내고 있을 때, 허가 관련 공무원 둘이서 서로 상의를 하더니 서류를 한장 만들어 주었습니다. 30일 내에 건축가를 고용하고, 그 후 60일내에 모든 허가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시에서 우리를 힘들게 할 법적인 근거도 별로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큰 불법을 저지른게 아니니, 고치리는대로 고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시에서도 우리를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문을 닫게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그랬던 겁니다.

눈물이 쏟아져 고개도 못들고 사무실을 나올때 시변호사와 공무원들이 주저하듯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이거니까, 우리가 나쁜 사람들이예요."

법원 건물 앞에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눈물이 줄줄줄 났습니다. 우리는 들개나 시궁쥐를 먹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창고에 돌아오니, 다들 푹푹찌는 무더위 속에 땀흘리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Jesus!" 를 외칠때 마음이 매우 즐겁고 시원했습니다.

다시 멕시코로 내려오는 길에 시의원 되시는 랜디 목사님께 오늘 받은 서류를 드리며 기도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를 허락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도와달라고 해보면 어때요?"

랜디 목사님의 파란 눈동자에 애정이 듬뿍 담긴 것이 보였습니다.

"돈이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해결 방법이 결국 돈이 되어서는 안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것도 역시 오직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울지않으려고 애쓰며, 문을 닫게 되더라도 주의 방법으로만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에서 하라는 대로 최선을 다해 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스테프들이 자고, 먹고 할 공간이 곧 필요합니다. 기도 해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곧 응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멕시코 하루 중 잠시, 아픔이 지날 때까지

목사님과 나단 전도사님이 땡볕에서 시멘트를 이겨, 바다에서 주워온 돌로 벽난로 만드는 동안 정민이, 에밀리, 에스더 그리고 나는 집 안에서 두런 두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더웠어도, 언제나처럼 바람이 기가 막히게 상쾌하고 시원했습니다.

약간의 흥분과 즐거움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발바닥이 불로 지지는 것처럼 뜨거워지면서 아픔이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발바닥을 살펴보니,벌 한마리가 몸을 웅크리고 붙어있었습니다. 벌을 떨쳐냈는데도, 작은 침과 벌의 내장이 여전히 발에 붙어있어서 정민이가 손가락으로 침을 빼주었습니다.

벌에 쏘인 발바닥이 쑤시는듯, 견디기 버거운 아픔이 가시는 시간은 몇 초. 발을 잡고 아픔이 가실때까지 겨우 숨만 쉬고 견디고 있는데, 에스더 였던가, 누가 말했습니다.

"약침, 약침! 사모님, 약침이라고 생각하세요."

아픈 와중에도 자매들때문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녁이 다되서야 멕시코 라를 떠나 미국으로 향하는 길이 왜 그리 먼 건지. 목사님은 계속 졸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시기도 하고, 난간쪽으로 가시기도 하고, 눈을 감지 않으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그래도 잠시 눈을 붙였던 내가 조금 운전을 교대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운전대를 잡았지만, 나도 내가 견딜 수 있는 체력의 한계를 이미 한참 전에 넘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긴 여정에, 오랜 운전에, 쉬지 않는 공사일에 지치셨는지 목사님은 조수석에 앉자마자 곧 깊은 잠에 빠지셨습니다.

발이 붓기도 했지만, 벌까지 쏘인 탓에 신발이 맞지않아서 맨발로 운전을 하며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다시 운전대를 잡으신 목사님은 피곤하다 하지 않으셨지만 국경에서는 토요일밤이라 그런지 줄이 너무너무 길어서, 일초 일초가 극한 견딤의 시간이었습니다.

사역자가 사역 가운데 무엇을 견뎌야할 때가 있습니다. 아픔이 다 지나갈 때까지 몇초가 걸리기도 하고, 몇 시간 혹은 몇 년이 걸리기도 하지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절박한 시간들은 견디기 힘든 아픔에 대한 우리의 기억보다는 짧은 것이 맞습니다.

어제, 발에 쏘여 견디기 힘들었던 몇 초, 운전하며 견뎌야했던 몇 시간. 내 몸은 사역이 그렇게도 힘든 거라고 기억하려하지만 나의 자유의지는 "그저 하루 중 잠시"였다고 말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꽉 찬 주님의 날입니다.

멕시코 세상에서도 가장 작은 물방울들이 가득한 언덕에서

될만해서 시작한 일이 아니니까, 오늘 다시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오직 믿음을 선물로 받은 이들의 삶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니지 않는 가시밭길 위에 이제까지 없던 길을 내고, 그 누군가의 기도를 위해, 그 누군가의 찬양을 위해 자리를 마련해둡니다.

지나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있었던 듯 없었던 듯 사라지는 삶이 부풀었다 사라지는 거품같이 허무하지 않느냐고 묻기도 하겠지요. 아직 길이 나지 않은 험한 곳에서 찬란으로 옷을 입고, 영원의 질서로 줄기를 삼은 기적과 같은 꽃들을 만납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께만 보실 수 있는 곳에서 온 힘을 다해 피고 지는 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은혜를 하락하사, 아무것도 아닌 목마른 영혼에게 그가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꽃도 보게하시고, 빛이 가득 넘쳐 터져나올듯한 달도 보게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께만 보실 수 있는 곳에서 폈다가 지는 꽃같다 해도 좋습니다

세상에서도 가장 작은 물방울들이 언덕마다, 산등성이마다 가득한 뿔라의 새벽에, 오랜 세월을 자랐어도 아직 키가 자그마한 나무아래 뾰족한 마른 가지들과 잎사귀들 위에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부르르하고 날개짓이 빠른 벌새도 바삐 다녀가고, 긴 꼬리와 투명한 날개를 가진 나름 우아한 큰 벌레도 지나갑니다.

여행가방을 그대로 열어두고, 오늘까지만 여기에 있게 되려나하며 언제든 갈 준비를 하고 기다립니다..

멕시코 달빛 아래 포근한 저녁

목사님의 얼굴이 금새 볕에 그을리는 것 만큼, 그의 숙원 사업인 거대 야외 난로가 거의 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성실한 홉킨 팀들의 수고로 게이트 하우스의 벽난로도 지붕을 뚫고 솟아오른 위용이 대단합니다.

나단 전도사님이 새로 만들어준 큰 닭장 안에서 여섯개의 알을 품고 있는 로즈메리 옆에, 화려한 꽁지와 빨간 벼슬이 멋진 아빠 닭 시저가 의기양양합니다. 정민이가 애정을 가지고 잘 돌본듯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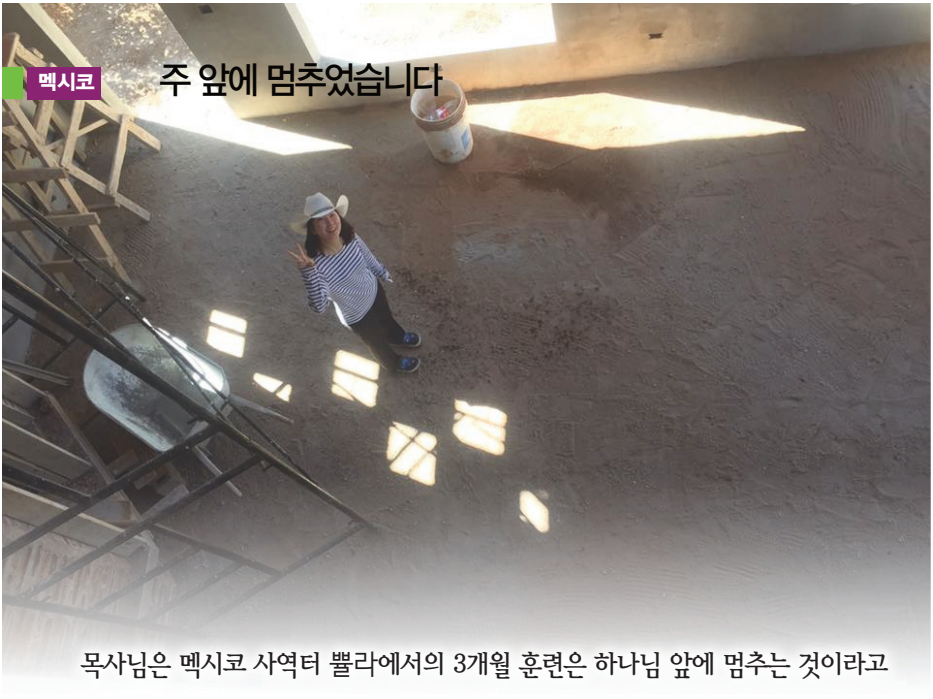
한국에서부터 3R미션으로 참가한 에밀리와 에스더 자매와 함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주께서 얼마나 이뻐하실까 생각해봅니다.

야외 난로의 완공 전이지만, 그 안에 철망을 깔고 숯을 피워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에밀리가 사온 커다란 멕시코 고추에, 달콤한 설탕으로 옷을 입은 호두를 얹은 특제 샐러드랑, 정원에서 따온 페퍼민트와 라임을 넣은 에밀리표 모히또도 한 잔씩 하면서 말이죠.

뒷마당에 테이블을 펴고, 우리가 아직 낮에 묻은 먼지를 뒤집어 쓰고 둘러앉았어도, 달빛아래 포근했었던 저녁이었습니다.

멕시코

주 앞에 멈추었습니다



목사님은 멕시코 사역터 뿔라에서의 3개월 훈련은 하나님 앞에 멈추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멕시코에 도착해서, 평온과 은혜가 흐르는 곳에서 다시 잠시 주 앞에 멈추었습니다.

사람이 숨을 쉬고 있는데, 어떻게 모른체 합니까?

가벼운 구름이 낮게 깔린 파나마에서 상파울로행 비행기로의 환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브라질로 출발하기 전에, 몇달만에 잠시 뵌 필그림 교회 이기영 목사님은 제자분이 한의사가 되어 나타나셔서 매주 치료를 해주시는 덕분에 몸이 찌릿찌릿하는 증상은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항상 바위처럼 든든한 분입니다.

엘에이에서 태권브이 캐빈 전도사님과 멕시코에서 잠시 올라온 나단 전도사님을 같이 뵈니 좋았습니다. 며칠전 홈 카페 사역때, 캐빈 전도사님께 누가 뜨거운 커피를 부었습니다. 병원에 갈만큼 심하게 화상을 입은 택원 전도사님의 가슴부위에 나단 전도사님이 계신 동안 며칠 매일 붕대를 붙여주셨다며, 묘한 기분을 되게 웃기게 전해주셨습니다.

뜨거운 커피를 맞은 분위의 살점이 옷에 붙어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힘들어하는 택원 전도사님의 메세지에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몇 명있기는한데,

500명 중 겨우 한 두 명이예요. 나머지 499명을 생각하면.... 그중 몇 명은 내가 커피 맞는 걸 봤는지, 괜찮냐고 물어보더라구요. 고맙더라구요."

그의 말에 도리어 제가 위로를 받은 것은 물론입니다. 나머지 499명.

다시 브라질로 향하는 여정이 이번처럼 힘들었던 적이 있었던가 생각해봅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 공격의 양상은 한 방향으로 향하는듯합니다.

"그렇게도 힘이 들면 그만두라."

잃어버린 영혼들과 주님의 약속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친구의 얼굴을 하고 있는 누구들은 우리에게 자기의 연약함과 이기심을 섬기라고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네가 나를 사랑하거든...'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는 큰 조직이 그렇게 돈이 없으면 그만두어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을 전해들으며, '누군가가 다칠 수도 있으니, 지금 당장 하고있는 모든 일을 그만두라.' 던 시청직원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정의도 아니고, 공의도 아닌 그 말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님을 압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음식을 나누는 수많은 가족들, 그리고 집집마다 그득한 이쁜 아이들과 매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따뜻하게 대접받는 수 많은 나그네된 이방사람들은 염두에도 두지 않는 말입니다.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 보고 들으심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듯합니다.

피곤함도 곤비함도 없는 용사의 발걸음이 닿는 길은 오직 영원으로 이어진 한 길뿐입니다. 생명의 근원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숨을 쉬고 있는데, 어떻게 모른 체 합니까?"

이런 저런 일로 막막할 때, 택원 전도사님께 메세지를 보냈더니, 그가 '그러게요.' 라고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직 숨을 쉬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순종함에 있어서 100% 확신이 있을 수 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비행기표만 있으면 가야겠는데."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브라질로 가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멕시코로 떠날 때 하셨던 말처럼, 사역자가 사역의 주도권과 모든 소유권을 주장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기름부우심이 끝난다고 하셨습니다. 나처럼 둔한 영혼이라도 주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확실한 순간임을 알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그런 순간입니다. 브라질로 향한 막막한 길을 떠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는 한국에서 LA로 멕시코로 쉬지 않고 오가야하는 여정 중, 길 위에서 보냈던 몇 날 밤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한없이 늘어지고, 피로한 눈꺼풀 사이로 깜깜한 밤이 내려앉은 길은 끝도없이 이어졌었습니다.

극적으로 비행기표를 구하고, 브라질로 가기 위해 LA로 10시간이 넘는 여정에 배가 고팠지만, 1불짜리 햄버거 하나를 사먹을 돈조차 없었습니다. LA와 멕시코에 다른 쓸 곳에

먼저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는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괜찮아?"

목사님은 피로에 못이겨 조수석에서 잠에 빠져들면서도, 밤길을 운전하는 내게 몇번이나 괜찮냐고 물으셨고, 그때마다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괜찮지않았습니다. 의지보다 육신이 훨씬 약했었습니다.

피로감도 있고, 또 밥을 굶으며 먼 길을 가야한다는 사실이 마음을 슬프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도 아무 것도 없는데, 브라질에 가야한다니 말입니다. 게다가 브라질의 사역터는 또 다시 계약이 안되어서, 브라질에 가도 어디로 가야할지 정처도 없는 터였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혹시 이 일을 기뻐하실까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기로 하고 잠시라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의리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목사님과 번갈아 차를 몰며 미국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국경을 막 넘으려는데, 메세지가 하나 왔습니다. 지금 뵐 수 있겠냐는 메세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게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다면서, 자정이 다 되어 우리를 만나 적지않은 금액을 헌금하셨습니다.

브라질에 도착하자마자, 쓸만한 자동차를 현금으로 구입했습니다. 사역터 구하는 일도 그렇게도 애를 태우고 잘 진행되지 않더니, 주께서 벌써 오랜전부터 사역을 위해 빼놓으

신듯, 반듯하고 넓직한 멋진 사역터를 구했습니다. 브라질 영주권이나, 신용이 없는 대신 6개월치 임대료를 미리 내고 사역터를 계약했습니다. 1불이 없어 바보처럼 슬퍼지려했던 것이 바로 며칠 전인데 말입니다.

예전에 주께서 물으셨을때 제자들의 대답과 같이, 주께서 주머니도, 지팡이도 없이 보내셨을때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했던 적이 한번도 없었음을 기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막막함과 불확실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찾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순간들을 주께서 예배로 요구하시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 길은 주님의 영광으로 통해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를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향한 순전한 갈망으로 항상 충성하며, 성실하게 그의 원하시는 바를 찾고 순종하기를 바라고 바랍니다.

촉촉하게 비가 내리는 상파울루의 밤에, 아름다운 멕시코 뿔라의 사진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무 생명도 살 수 없을 것 같았던 곳에 길이 나고, 이제는 사람들이 거할만한 곳이 되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삶 안에 넘치는 풍부와 생명력을 알게하시니 감사합니다.

브라질

성곽이 없는 성 같은 예루살렘에 여호와께서 불 성곽이 되시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부드러운 나무와 하얗고 반짝이는 깨끗한 대리석으로 꾸며진 이 모델 하우스 같은 저택의 대문 밖은 브라질 빈민촌 파벨라, 그리고 동네 아이들이 뛰노는 작은 공원입니다. 파벨라가 점점 더 커지면서 사람들이 좋은 집을 두고 떠나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여호와의 은총 'Favor de Deus' 이라는 어린이 사역에 사용할 집의 주인집 아저씨가 집안 구석구석을 안내주었습니다. 세탁기까지 그대로 남아있고, 가구는 물론 부엌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릇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아이들 사역을 위한 가구나 학용품들이 많이 필요해서, 생각하면 어디부터 해야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출발이 기대이상 좋습니다. 인터넷도, 전화도 그대로 연결되어있고, 뜨거운 물도, 전기도 들어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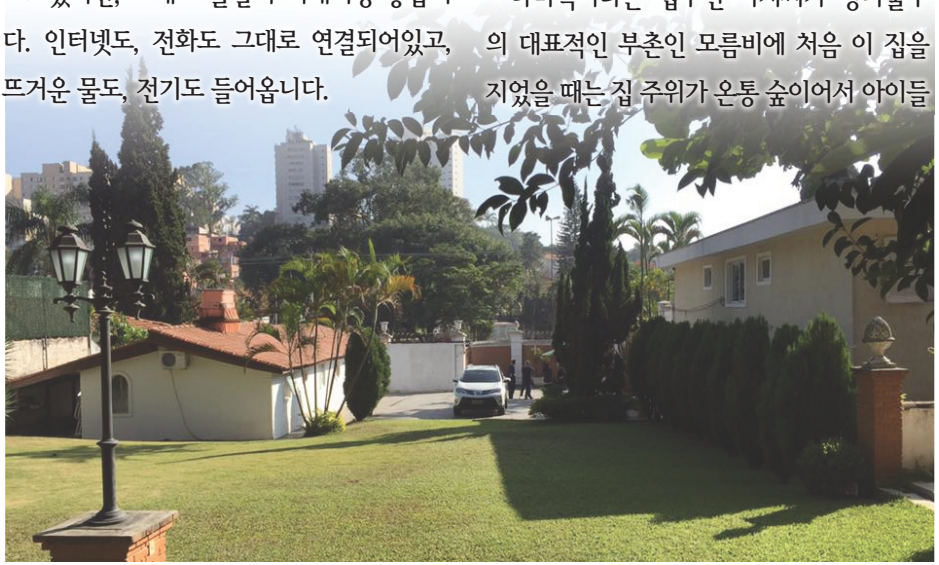
이층은 꽤 큰 사이즈의 방이 네 개라서 교실로 사용할 수 있고, 아이들이 먹고, 놀 수 있는 공간도 집 안팎으로 충분합니다.

커다란 거실에서는 여러 명이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뒷마당에서 아이들이 축구하는 것을 보면서 바베큐도 할 수 있습니다.

마당에 서서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주시고, '그래, 이제 해봐라.' 하시는듯 해서 피가 뛰었습니다.

무엇부터 해야할지 기도하면서 잠잠히 주님의 작전명령을 기다리며 아침을 바라는 이 시간이 아주 소중합니다.

다미닉이라는 집주인 아저씨가 상파울루의 대표적인 부촌인 모름비에 처음 이 집을 지었을 때는 집 주위가 온통 숲이어서 아이들



키우면서 매우 행복했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다 자라서 독립할 때 쯤되니, 브라질 빈민촌의 총칭인 파벨라의 무허가 건물이 집을 둘러싸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근처 아파트에서 부부가 사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집은 상파울루에서 두번째로 크다는 파라이조폴리스 파벨라와 대저택이 즐비한 부촌인 모름비의 경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의 땅, 여호와의 은총, Favor de Deus라 이름지은 이곳에 밤이 끝나 어둠이 걷히고 아침이 되자 창문마다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마치 파라이조폴리스 파벨라의 창문들이 우리 쪽으로 활짝 열린듯 합니다. 사람들이 아침을 맞는 소리가 집 안까지 정겹게 들려옵니다.

파벨라의 집들을 지을 때 많이 쓰는 빨간 벽돌은 속이 비어서 잘 깨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빨간 벽돌과는 달라서 무척 가볍습니다. 파벨라 안에서는 건물위에 건물을 짓고, 그 위에 또 건물을 지어서 3층, 4층, 5층짜리 집들이 좁은 땅에 다닥다닥 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견고한 콘크리트 아파트가 높이 올라가고, 파벨라에는 사람들이 집에 집을 붙이고, 높이고, 연결해서 살고, 그 와중에 우리는 큰 땅위에 덩그러니 집이 두 채가 있습니다. 두 채의 집 중 집 하나는 사역에 사용하고, 집 하나는 스테프 하우스로 오기곤 선교사님 부부가 오시면 묵으실 겁니다. 뒷마당의 초록색 잔디밭은 집 앞 공원보다도 푸르르고 큽니다.

집은 파벨라의 주 진입로에 있고, 옆은 24시간 영업을 하는 주유소이며, 마을 사람들이 종일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어제 자야할 시간에는 낯설기도 하고 해서 좀 두려워지려고 할 때, 성곽이 없는 성읍 같은 예루살렘에 대해 여호와께서 불로 둘러

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희를 범하는 것은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신 힘있는 약속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스가랴 2:10–13)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의 딸아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침에 부엌 창가에 놓인 화분 둘에서, 어제는 죽은 것처럼 파리하게 보이던 선인장 끝에서 피어난 작고 노란꽃들을 발견하고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늘 끝 어딘가에서 생겨난 하얀 구름이 바람따라 흐르고, 대문 밖에서 아이들이 큰소리를 내며 뛰노는 소리가 들립니다. 주께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이들은 여호와 앞에 잠잠히 그들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아침입니다.

LA 푸드 드라이브 스케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내신 식사입니다.

5 BREADS 2 FISH
Meals on Jesus!

자원봉사를 원하시면
각 지역으로 30분전에 가시면 됩니다.

문의: 5breadsand2fish@gmail.com

일주일에 8만명분의 식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더욱 많은 곳에서 푸드 드라이브가 열립니다. 기도해주십시오.

Monday: 4:00 PM (delivery only)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3225 Tyler Avenue
El Monte, CA 91732

Monday: 3:00 PM
E.Rancho Dominguez Service Center
4513 E. Compton Blvd.
Compton, CA 90221

Tuesday: 2:30–3:30 PM
Ramona Gardens Recreation Center
2830 Lancaster Ave.
Los Angeles, CA 90033

Tuesday: 3:00 PM
Victory Outreach Rehab, Compton
613 N.Crane Ave. Compton, CA 90221

Tuesday: 2:30–4:00 PM
Victory Outreach Rehab, Compton
613 N.Crane Ave. Compton, CA 90221

Wednesday: 2:40–4:30 PM
Slauson Recreation Center
5306 s Compton ave LA CA 90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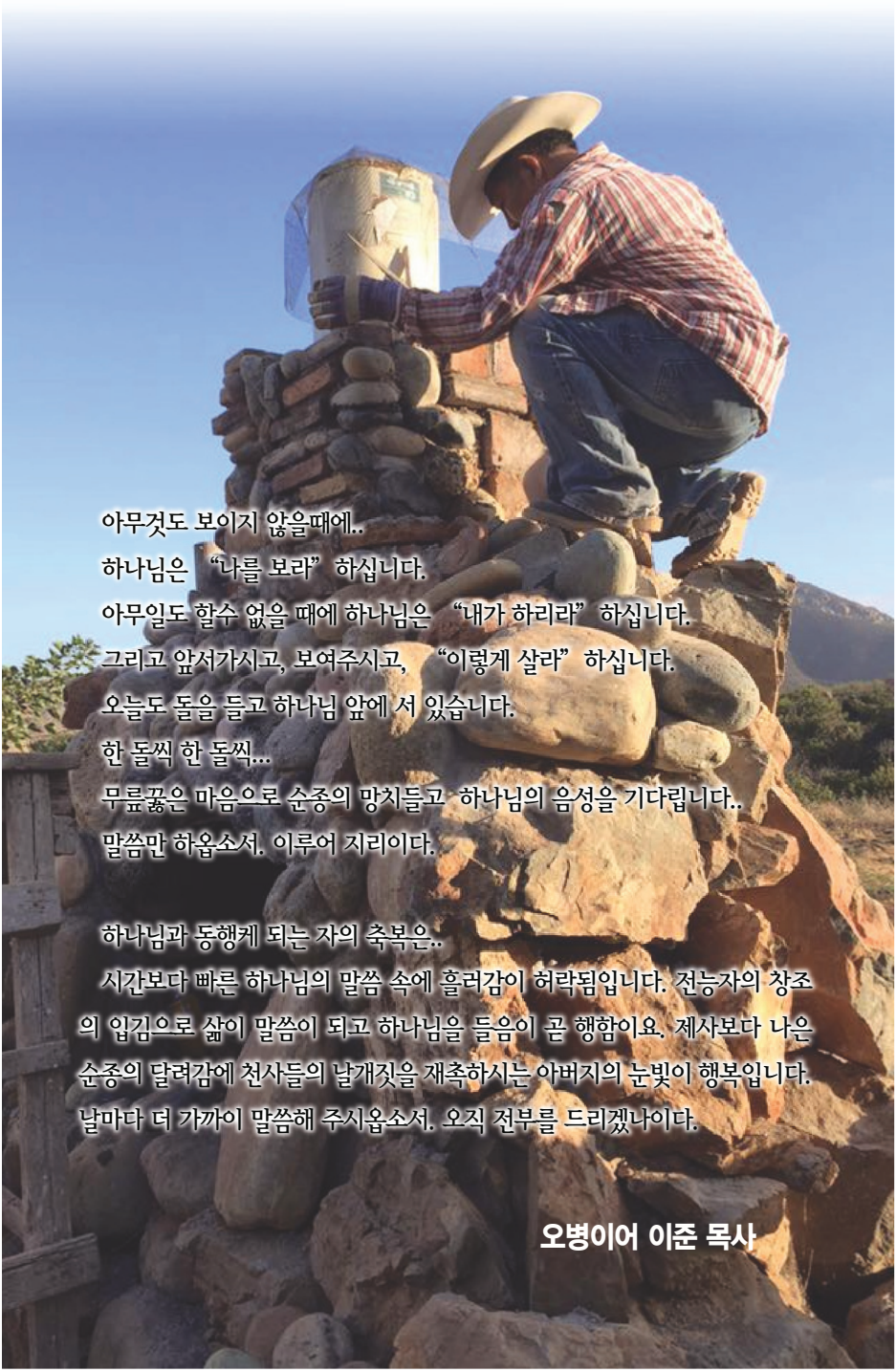
THursday: 3:00 PM
4716 E Cesar Chavez Ave.
Los Angeles, CA 90022

Friday: 3:00 PM
El Monte Senior Center
1441 Santa Anita Ave.
El Monte, CA CA 91733

Saturday: 3:00 PM
Salt Lake Park
3329 E Florence Ave
Huntington Park, CA 90255

Saturday: 3:00 PM
Jim Gilliam Park
4093 Nicolet Ave
Los Angeles, CA 90008

Sunday: 5:00 PM (delivery only)
210 senior house hol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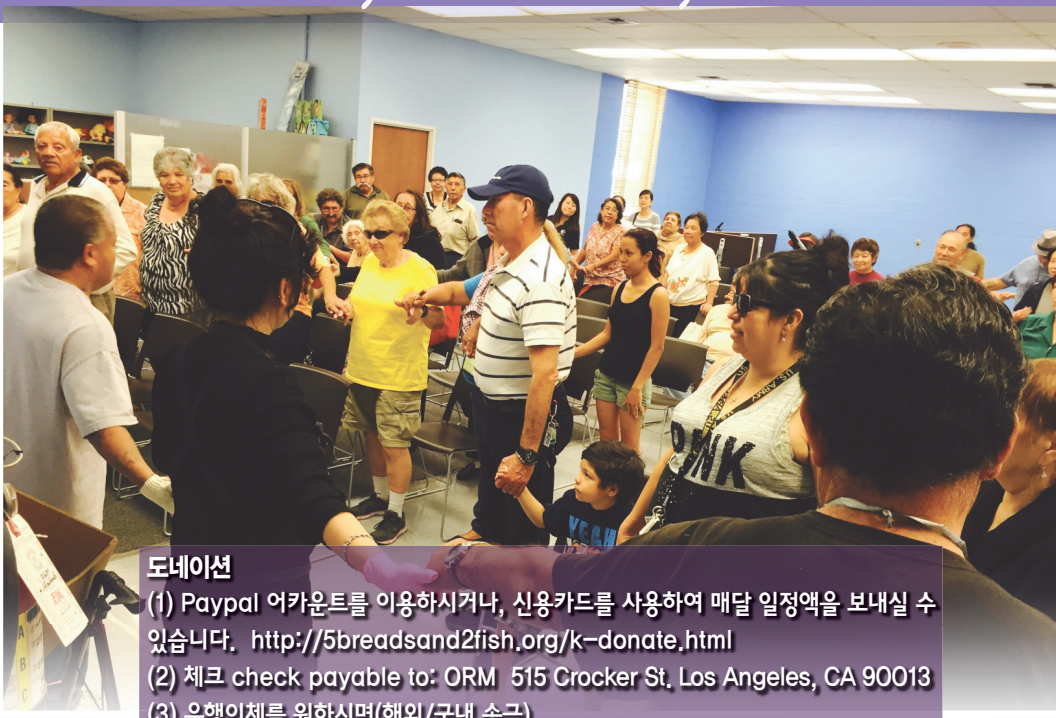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때에..
하나님은 "나를 보라" 하십니다.
아무일도 할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내가 하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앞서가시고, 보여주시고, "이렇게 살라" 하십니다.
오늘도 돌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한 돌씩 한 돌씩...
무릎꿇은 마음으로 순종의 망치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루어 지리이다.

하나님과 동행케 되는 자의 축복은..
시간보다 빠른 하나님의 말씀 속에 흘러감이 허락됨입니다. 전능자의 창조의 입김으로 삶이 말씀이 되고 하나님을 들음이 곧 행함이요, 제사보다 나은 순종의 달려감에 천사들의 날개짓을 재촉하시는 아버지의 눈빛이 행복입니다. 날마다 더 가까이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직 전부를 드리겠나이다.

오병이어 이준 목사

REBUILD, RESORE, RENEW



도네이션

(1) Paypal 어카운트를 이용하시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매달 일정액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http://5breadsand2fish.org/k-donate.html

(2) 체크 check payable to: ORM 515 Crocker St. Los Angeles, CA 90013

(3) 은행이체를 원하시면(해외/국내 송금)

입금은행 : Bank of America(SWIFT code: BOFAUS3N)

818-840-1600/142 E olive ave. Burbank CA 91502

입 금 주 : Oaks of Righteousness Ministry

Routing # : 026009593 / Account # : 000217028878

(4) 연락처: 818-531-5332

5 BREADS 2 FISH Meals on Jesus!

의의나무 사역

Oaks of Righteousness Ministry은

2009년 창립된 IRS인증 세금공제 비영리법인입니다.

www.5breadsand2fish.org/k-index.html facebook.com/fivebreads.twofish